

특집논문 **거버넌스와 지역경제**

거버넌스 관점에서의
사회적 경제조직의 성과요인 분석
이해관계자의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Analysis of the Performance Factors of the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in the Governance Perspective

강병준**

사회적 경제조직이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시민사회, 기업이 상호작용하는 거버넌스가 전제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사회적 경제조직의 성과요인을 실증적으로 밝혀내기 위해 거버넌스적 관점에서 접근했다. 실증분석 결과 사회적 경제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정부 부문의 법적 지원, 시민사회 부문의 신뢰와 착한 소비, 기업 부문의 기업윤리와 협력·네트워크, 그리고 조직관리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경제조직의 정책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첫째, 정부 부문에서는 사회적 경제조직의 인증제도와 법률을 통합화하여 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시민사회 부문에서는 사회적 경제조직의 신뢰 제고와 착한 소비 확산을 위해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활용과 사회적 경제조직의 정부 민간위탁 사업 참여가 필요하다. 셋째, 기업 부문에서는 기업윤리 혹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제고, 일반 기업과 사회적 경제조직의 협력·네트워크 강화, 사회적 경제조직의 조직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조직관리가 필요하다.

주요어: 사회적 경제조직, 거버넌스, 사회적 경제조직의 성과요인, 기업연계, 민

* 본 논문은 필자의 학위논문 일부를 수정·보완하여 발전시킨 것임을 밝힙니다.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귀중한 코멘트를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회 감사드립니다.
이 논문은 한국행정학회 신진학자연구과제 연구비지원으로 연구되었습니다.

** 한국행정연구원 국정전략연구부 초청연구위원(mc828@hanmail.net)

간위탁 참여

1. 서론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체제는 시장이 가장 효율적이고 공정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그러나 빈곤, 실업, 양극화와 사회적 소외 같은 문제를 발생시키면서 위기에 직면해 있고 새로운 문제해결 방식을 요구받고 있다. 즉 시장 스스로의 조정으로 재화의 생산과 분배의 질서를 유지하는 ‘자기조정 시장경제’는 도달할 수 없는 지나친 유포피아라고 주장한 폴라니(K. Polanyi)의 지적을 다시금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Polanyi, 1944: 152). 폴라니가 제시하는 해결책은 단순히 시장경제를 부정하거나 국가의 개입으로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시장을 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서구 선진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은 계속되는 경제위기와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해 기존의 전통적인 국가개입이나 민간위탁 같은 문제해결 방식에서 벗어나 ‘사회’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Giddens, 1998; Reich, 2007: 7~9; Chang, 2009: 12; 신동면, 2009: 291).

이러한 배경에서 사회적 경제조직(Social Economy Organizations)은 더 이상 국가와 시장이 해결할 수 없는 경제위기와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주목 받고 있다. 또한 계속되는 글로벌 경제위기는 서구사회는 물론이고 한국 사회에서도 정부의 부담을 가중시키면서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이라는 사회적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¹⁾

1) 사회적 경제조직은 본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비영리법인, 상법상 주식회사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육성법」으로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과 기획재정부의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인

한국의 경우 정부 주도에 의해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사회적기업육성법」이 2007년 제정되었고, 2014년 5월 현재 1,052개의 사회적기업이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아 활동 중이다. 또한 2012년 12월에는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2014년 4월 현재 4,572개의 다양한 형태를 가진 사회적 경제조직이 설립되었다(한국 사회적기업진흥원, 2014; 기획재정부, 2014). 그러나 사회적 경제조직은 외형적으로 출범 5년 만에 10배 이상 늘어났지만 재정난으로 인증을 반납하거나 폐업신고를 하는 등 정부 주도의 고용 초점 지원 방식에 문제를 나타내고 있다(KBS, 2012년 7월 26일 자; 《문화일보》, 2014년 1월 6일 자). 또한 학자들은 정부 주도형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정책이 사회적 경제조직의 활성화에 저해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고, 시민사회와의 연계와 소통 부재, 사회적 경제조직 운영상의 전문성 부족 등을 지적하고 있다(LG경제연구원, 2009: 49; 김순양, 2009: 68; 이광택, 2008: 34; 박찬임, 2009: 170; 김혜원, 2010: 15). 즉, 사회적 경제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제3의 방법으로서 사회적 경제조직, 민간 기업, 정부가 협력하여 공익성과 수익성을 조화롭게 추구하여 시장 만능적 신자유주의와 비효율적인 국가주의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거버넌스적 시각이 요구된다(Giddens, 1998: 125; Campi et al., 2006: 40; Ansell and Gash, 2008; Kaletsky, 2010).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거버넌스적 관점에서 사회적 경제조직의 성과요인을 실증연구를 통해 밝혀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이론적 논의에서는 사회적 경제조직과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를 통해 사회적 경제조직과 거버넌스가 어떠한 관계적 특성을 형성하는지 파악하겠다. 다음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를 통해 추출된 변수로 분석틀을 설정하고, 사회적 경제조직의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마지막으로 실증분석을 통해 사회적 경제조직의 성과요인에 대한 영향관

증된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사회적 경제조직의 다양한 조직형태를 포괄하는 사회적 경제조직이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계를 밝혀내어 향후 정부의 사회적 경제조직 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1) 사회적 경제조직

사회적 경제조직은 다양한 이념을 담고 있고, 협동조합, 지역사회, 자발적 집단에서 역사적 기원을 찾을 수 있다(Doherty et al., 2009). 사회적 경제조직은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 즉 이윤을 추구하는 시장 경제와는 달리 시장 퇴출자를 돌보고 배려하는 이타주의적 효용을 추구하는 경제, 공동체의 연대와 통합을 우선적 가치로 삼는 공적인 경제에 바탕을 두고 있다(주성수, 2010: 42~43). 사회적 경제조직은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직면한 경제적 위기와 사회적 위기가 중첩되어 나타난 것이며, 정부 실패와 시장 실패를 동시에 경험한 사회에서 새로운 대안적 해결방식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정의는 크게 조직의 특성과 목적에 따른 정의로 구분할 수 있다.

조직의 특성에 따라 Borzaga and Santuari(2001: 194)는 안정적인 기업경영방식으로 사회적 배제 극복이 목적인 서비스, 혹은 보다 일반적인 대인 그리고 지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제3섹터 조직을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정의하고 있다. EMES는 사회적기업을 공동체(지역사회)의 이익을 위한 분명한 목적으로 직접적으로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민간조직이라고 정의하고 있다(Defourney and Nyssens, 2008: 5).²⁾ 또한 Martin and Thompson(2010: 13)은 사회적 경제조직을 사회 이익과 경제

2) EMES는 유럽의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경제조직을 연구하는 네트워크로 본래 유럽위원회에 프랑스어로 제출된 프로젝트의 제목인 “유럽의 사회적기업 등장 (L'Émergence des Enterprise Sociales en Europe)”에서 유래한다.

발전을 위해 사람들과 공동체를 함께 이끄는 비즈니스 벤처라고 정의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조직의 목적에 따른 정의로 OECD(1999: 4)는 사회적 경제조직이 기업적 방식으로 조직 되는 일반 활동 및 공익활동을 아우르는 것이고, 주요한 목적은 이윤극대화가 아니라, 특정한 경제 및 사회적인 목적, 재화나 용역의 생산이나 사회적 배제 및 실업 문제에 대해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영국통상산업부 DTI(Department for Trade and Industry)는 사회적 경제조직을 우선적으로 사회적 목적을 가진 비즈니스를 의미하여, 잉여를 비즈니스나 커뮤니티(지역사회)의 이익에 재투자하는 사업체라고 정의하고 있다(DTI, 2002: 75). 또한 Auteri(2003: 173)는 사회적 경제조직을 순수한 사업에서 시도되어서 순수한 박애주의적 기업으로 변환된 조직으로 박애주의와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장을 혼합하여 선택된 특별한 형태를 갖는 조직으로 정의하고 있다.

반면, 국내 학자들의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사회적 경제조직의 조직 특성과 목적을 혼용하여 사용하며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엄형식(2005: 85)은 사회적기업이 유럽 국가의 다양한 사회적 맥락, 특히 복지 국가의 위기 속에서 비영리 단체들이 사회적 서비스 전달에 참여하고, 시민단체들이 주도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나타난 현상들을 포괄적으로 개념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최종태 외(2008: 5)는 사회적 경제조직이란 사회적 목적을 가진 기업으로 인식되며, 원래 사회의 저소득층이나 노숙자, 그리고 삶의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직업 훈련의 기회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체 설립을 모색 중이던 미국의 비영리 활동가에 의해 사용된 것이라 주장한다. 그리고 법적 정의에서 한국의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는 사회적 경제조직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국가의 인증 절차를 마친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는 협동조합을 재화

도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으로 정의하고 있다.³⁾

사회적 경제조직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각 나라마다 사회적 경제조직이 성장한 배경이나 역사적 맥락, 정책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적 경제조직은 전통적 비영리 조직과 전통적 영리 기업 사이에 존재하지만 실제로 그 존재가 뚜렷하지 않은 혼성조직의 특성을 갖고 있다(Alter, 2007: 15; Bills, 2010: 7~8). 이러한 특성에 따라 사회적 경제조직은 혼합조직 중에서도 사회적 사명 추구를 1차적으로 수행하면서 조직의 지속 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이윤추구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남승연 외, 2010: 168). 본 논문에서는 사회적 경제조직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정부의 인증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을 포괄하여 정의하고자 한다. 즉, 사회적 경제조직은 공익성과 공공적 가치에 기반을 두고 사회문제 해결을 목표로 다양한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수익 창출 활동을 하는 자발적(Voluntary)으로 결성된 집단 혹은 조직을 의미한다.

2) 거버넌스

거버넌스(Governance) 패러다임은 국가 및 시민사회의 관계를 새롭게 규정하는 실제 세계에서 거버넌스는 국가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국내 시장과 세계 시장, 국내 시민사회와 세계 시민사회라는 차원을 달리하는

3) 협동조합기본법에서는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을 구분하고 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의 기본적인 사항에 더하여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이다. 또한 협동조합은 시·도지사에게 설립신고를 하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협동조합기본법 제11조와 제12조에 명시되어 있다.

각 주체 간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할 것을 요구한다(김석준 외, 2001; 한승준, 2007; 김혁, 2010). 거버넌스에 관한 사고는 어떻게 경제와 사회의 방향을 잡아가고, 어떻게 집합적 목표에 도달할 것인가에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Pierre and Peters, 2000). 즉, 거버넌스는 정치적 게임의 공식적·비공식적 규칙을 관리하는 것이며, 권력행위의 규칙을 결정하고, 그러한 규칙과 관련한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Hyden, 1999: 185). 또한 거버넌스는 중앙정부가 사회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에 관한 것이며, 그러한 상호작용의 네트워크에 자율적인 조정이 있는가에 관심을 가진다. 이와 관련하여 World Bank(2003: 138)에서는 시민 또는 그들의 대표자가 요구하는 공공재나 기타 재화를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책임성 있는 방식으로 제공하는 공공조직의 제도적 능력이 거버넌스라고 보고 있다(Kjaer, 2004: 57).

한편, 거버넌스는 네트워크식 국정관리체계를 의미한다. 그동안 계층제적 국정관리체계로서 정부는 공공 서비스의 생산과 전달에 민간 부문과 비영리 부문의 참여가 확대되었다. 그 결과 공공 서비스 전달의 효율성과 효과성은 정부 부문과 민간 부문 및 비영리 부문 간 협력적 네트워크의 구축 및 관리에 영향을 받게 되었다(Peters and Pierre, 2005: 32; 이종수, 2010: 147).

결국, 거버넌스는 학자들의 다양한 정의에도 불구하고 합의된 명확한 정의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논문에서 거버넌스는 기존의 정부와 구별되는 통치양식으로서 국가를 운영하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상호작용 형태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거버넌스는 현대 국가가 당면한 다양한 문제들 가운데 전통적인 국가의 통치방식 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공공의 문제들을 다른 주체인 기업과 시민사회와 협력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해결해나가는 방식이다(이명석, 2002; 한승준, 2007; Ansell and Gash, 2007). 예를 들면, 빈곤, 실업, 양극화, 사회통합 같은 문제들에서 거버넌스는 과거 정부 중심의 문제 해결방식에서 벗어나 시장과 시민사회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사회의 제반 문제점들을

해결해나가게 된다.

3) 사회적 경제조직과 거버넌스의 관계적 특성

(1) 정책 환경 변화

사회적 경제조직은 1970년대 세계적인 경기 침체 현상이 발생하면서 각국의 복지정책에 대한 변화를 가져 오면서 등장하게 되었다.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유럽 국가는 높은 실업률과 함께 정부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었고, 복지부분의 개혁 압력을 높이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각국은 시혜성 복지에서 근로자를 생산현장으로 재취업시키려는 근로 연계 복지 또는 생산적 복지정책으로 변화를 시도하게 되었다(조영복, 2010). 또한 사회적 경제조직은 더 이상 전통적으로 국가와 시장을 통해서 충족될 수 없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정책적 수요에 대한 사회적 대응과 빈곤층이나 저소득층에 대한 분배정책 혹은 재분배정책의 수단으로 도입된 측면이 있다(장인봉·장원봉, 2008; 김태영, 2012; 김윤희, 2010).

행정학과 정책학에서 거버넌스 논의는 1980년대부터 일어난 공공분야의 변화에 대한 것이다. 위계질서, 중립성, 직업관료제라는 베버적인 원칙에 입각한 모델로부터 벗어나, 공공분야 개혁을 시장과 네트워크라는 다른 모델의 관리방식을 도입했다(Kjaer, 2004: 35). 거버넌스가 출현하게 된 배경은 다양하지만 종합해보면 정부의 역할과 위상 축소, 정부 이외 행위자들의 권한 및 참여증대, 새로운 공공관리의 필요성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즉, 21세기로 진입하면서 세계화 정보화로 인해 국가 중심의 거버넌스만으로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응하여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국정운영 기제로서 정부, 시장, 비영리기구가 자율적으로 협력하여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는 네트워크 형태의 국정운영방식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한승준, 2007; 은재호, 2009: 34). 이처럼 거버넌스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정운영방식이고, 사회적 경제조직은 본질적으로 거버넌스 구조

속에서 운영되며, 협력의 정신을 통해 확산된다(Huybrechts and Defourny, 2010; Nakagawa and Laratta, 2010).

(2) 사회문제의 해결

사회적 경제조직은 사회적 목적과 경제적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는 집단 혹은 조직이다. 특히, 사회적 경제조직은 사회적 목적, 사회적 결과, 사회적 임무, 이익의 사용방지 등의 속성을 가지며, 시장에서 영리활동을 하는 조직이다(Social Enterprise Coalition, 2003; Defourny, 2001). 사회적 경제조직에 ‘사회적’이라는 용어는 유럽의 사회적 경제조직 연구 네트워크인 EMES의 사회적 경제조직에 관한 다섯 가지 기준에 잘 나타나 있다. 사회적 경제조직의 다섯 가지 사회적 기준은 지역사회 공헌이라는 명확한 목적, 시민집단이 설립하는 조직, 자본 소유에 기인하지 않은 의사결정, 활동에 의해 영향 받는 사람들의 참여, 이윤분배의 제한 등이다(Defourny, 2001). 그러나 최근에는 빈곤, 실업, 복지와 같은 전통적인 사회문제뿐만 아니라 교육, 간병, 가사지원, 보육, 환경, 양극화, 사회통합 등과 같은 문제들까지 포함시키면서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인식되고 있다(관계부처합동, 2011; 채중헌, 2011).

거버넌스는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 해결에서 공사부문의 융통성 있는 결합을 산출하려는 시도이고, 시민사회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사회적 협동과 자발적 기여 및 집합적 노력을 위한 새로운 시도로 볼 수 있다(Kooiman, 2002; Schmitter, 2002). 즉, 거버넌스는 전통적인 관점에서 보면 무질서하고 혼돈스러운 체제를 통해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사회문제 해결방식을 지칭한다(이명석, 2007: 24; 권기현, 2008). 또한 거버넌스는 인터넷 시대를 맞이하면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단체와 공동체 네트워크를 형성, 정보 및 피드백의 원천, 정보 및 협의 교환을 위한 기반제공, 지식 및 자원봉사활동, 다른 참여 형태의 풀 제공, 공동체의 발전에 대한 자발성의 증대와 협력, 여성과 취약계층의 참여확대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김현성, 2009; Walsh, 2007; UNDP,

2005). 본 논문에서 거버넌스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정부, 공공기관, 사적 부문, 시민사회가 가담하는 상호작용의 과정을 의미한다. 즉, 거버넌스는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특성을 가지며, 사회적 경제조직은 그 속에서 사회문제 해결의 조직목표를 수행하게 된다(McCray, 2009; Diochon, 2010).

(3) 공공의 가치 창출

유럽과 미국에서 사회적 경제조직은 사회, 교육, 보건 등의 기초적인 사회적 서비스가 빈곤층과 낙후된 지역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복지 전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중심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사회적 경제조직은 집단행동, 상호 신뢰, 시민 책임감, 민주적 가치 등을 장려함으로써 사회적 자원을 창출하고 개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Evers et al., 2004: 10~11). 또한 사회적 경제조직은 경제개발과 재건, 고용, 기업, 효과적인 공공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의 권익 향상 등에 모두 이바지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경제조직은 빈곤과 실업에 대해 혁신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사회적 약자를 끌어안음으로써 사회적 자원을 확충하는 사회통합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Peattie and Morley, 2008: 96; 이영범·남승연, 2009: 100; 유병선, 2010: 187).

한편, 자치거버넌스 혹은 네트워크 거버넌스는 다양한 행위자들 간의 신뢰와 협동을 바탕으로 참여와 네트워크에 기초한 문제해결 방식을 강조하는 것이다(Kooiman, 2003: 13). 거버넌스형 마을 만들기 같은 경우 정부의 중앙 집권적인 통치를 기반으로 한 계획결정이나 실사가 아니라 해당 지역을 구성하는 관련된 모든 단체가 협력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가능한 ‘함께 이끌어가는(Governance)’ 것으로 표현되는 정치적 과정이다(Nishiyama Yssuo and Nishiyama Yaeko, 2008: 70). 새로운 거버넌스 경향은 기존의 정부 주도적·폐쇄적·일방적 국정운영에서 벗어나 시민사회와 정부가 대등한 관계에서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좋은 거버넌스’의 형성이고,

사회적 경제조직은 운영과정에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공동체 사회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김미경, 2008; Ridley-Duff, 2010; 김태영, 2012).

4) 선행연구의 비판적 검토

지금까지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관련 연구가 꾸준히 증가해오고 있다. 사회적 경제조직 연구의 경향을 살펴보면 크게 사회적 경제에 관한 이론적 연구, 국가 간 비교 연구, 사회적 경제조직의 현황과 성공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 발전 차원의 연구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초창기 연구는 사회적 경제조직을 국내에 소개하는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 초창기 연구의 특징은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개념과 외국의 성공적인 사례의 소개를 통한 관심을 유도하는 연구가 많았다. 대표적인 연구는 OECD(1999), Borzaga and Defourny(2001), 김경희·반정호(2006), 심창학(2007), 남승연·이영범(2008) 등의 연구가 있었다.

둘째, 사회적 경제조직의 국가 간 비교 연구이다. 국가 간 비교 연구의 특징은 사회적 경제조직의 역사와 배경에 따라 각국에서 사회적 경제조직이 성장하고 발전하게 된 원인을 밝혀내고 있다. 대표적인 연구는 OECD(2009), Kerlin(2010), 이은선(2009) 등이 있다.

셋째, 사회적 경제조직의 현황과 성공에 관한 연구이다. 정부에서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되고 사회적 경제조직의 육성을 추진하면서 사회적 경제조직의 성공을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대표적인 연구는 이광우(2008), 김혜원(2009), 김태영(2012), 장원봉(2009) 등이다. 이들 연구들은 사회적 경제조직의 현황과 육성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넷째, 사회적 경제조직과 지역사회 발전에 관련된 연구이다. 이와 관련된 연구의 특징은 사회적 경제조직과 지방정부가 파트너십을 통해 지역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으로 각국의 다양한 성공 사례와 국내의

사회적 경제조직의 성공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대표적인 연구는 장인봉·장원봉(2008), 홍현미라(2008), 김종수(2009), 김윤희(2010), 이도형·함요상(2010), 김도균·정선기(2014) 등이다.

다섯째, 사회적 경제조직의 성과에 관한 연구이다. 즉, 사회적 경제조직의 사회적·경제적 성과의 계량적인 접근에 관한 연구로 정부 지원금의 효과, 조직형태의 조절효과, 업종별 가능성, 종업원의 서비스 지향성 등을 분석했다. 관련연구로는 김재홍·이재기(2012), 강병준·최조순(2013), 임준형(2013), 박경하 외(2014), 장석인(2014) 등이 있다.

그러나 사회적 경제조직 선행연구들은 이론적이고 규범적인 연구에서 실증연구가 증가되고 있으나, 사회적 경제조직 연구의 특성상 사례 연구가 주류이다. 또한 최근에는 일부 실증연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경제적 접근방식의 분석과 지역적 한계, 자료의 부족 등으로 더 다차원적인 분석은 수행되지 못했다. 즉, 사회적 경제조직의 기업적 특성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사회적 경제조직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특히, 사회적 경제조직의 성과 측정을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기업, 시민사회와 같은 이해관계자에 대한 고려가 매우 중요하다(Campi et al., 2006: 40; 이은애, 2009; 조영복, 2010; 채중헌, 2011; 김도균·정선기, 2014). 즉, 사회적 경제조직의 성과는 사회적 경제조직 자체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렵고, 사회적 경제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복합적인 환경적 요인을 밝혀내야 한다. 다시 말해, 선행 연구들은 정부 부문, 시민사회 부문, 기업 부문과 같은 환경적 요인을 통합적이고 종합적으로 고려한 연구가 부족했다.

첫째, 정부 부문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다. 사회적 경제조직은 정부의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정책에 따라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규범적 연구이고, 일부 실증연구의 경우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정부의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법적 지원, 재정적 지원, 전자정부서비스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었다.

둘째, 시민사회 부문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 사회적 경제조직은

사회자본 형성을 통해 성공할 수 있고, 공공성을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신뢰는 중요한 요소이다(Borzaga and Defourny, 2001; Evers et al., 2004). 또한 공정무역을 실시하는 사회적 경제조직이 늘어나면서 ‘착한 소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고, 시민참여로서 사회적 경제조직과 시민사회의 소통이 중요하다(박은미, 2009; 권은정, 2010). 그러나 이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셋째, 기업 부문에 대한 연구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 기존 선행연구들은 사회적 경제조직의 역량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그러나 사회적 경제조직은 일반 기업과 협력 관계를 맺기도 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계된 기업 윤리와의 관련이 있다(Vogel, 2005; Visser et al., 2007; Doherty et al., 2009). 또한 사회적 경제조직은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조직 내부의 역량강화를 위한 조직관리가 요구된다(Martin and Thompson, 2010).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그동안 사회적 경제조직 성과요인에서 고려되지 못한 거버넌스 체계의 정부 부문, 시민사회 부문, 기업 부문의 요인들이 사회적 경제조직의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혀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사회적 경제조직에 관련되어 있는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사회적 경제조직의 성과요인에 대한 영향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3. 연구 설계

1) 자료 수집 및 측정 지표

(1) 자료 수집

본 연구는 사회적 경제조직의 성과요인을 밝혀내기 위해 사회적 경제조직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사회적

경제조직의 이해관계자는 사회적기업가, 예비 사회적기업가, 사회 활동가, 사회적 경제조직 관련 공무원(업무 담당자), 사회적 경제조직 지원기관 근무자, 사회적 경제조직 종사자, 일반 시민 등이다.

설문조사 기간은 2010년 10월 8일부터 2010년 11월 15일까지 실시되었다. 설문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포함하여 총 500부를 배포했고, 분석에 사용한 설문지는 총 277부이다.⁴⁾ 설문조사 지역은 전국을 대상으로 했고, 주로 권역별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가 실시되고 있는 서울·강원권 S여자대학교, 경인권 K대학교, 대전·충청권 M대학교와 C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광주·전라권 W대학교와 M대학교, 제주권 J대학교 등에서 실시되었다. 그 밖에 설문조사는 고용노동부에서 발간된 사회적기업 개요집의 주소록을 활용했다.⁵⁾

(2) 측정 지표

본 연구는 사회적 경제조직 성과요인을 밝혀내기 위해 종속변수를 사회적 경제조직의 성과로 했고, 독립변수는 정부 부문, 시민사회 부문, 기업 부문 등의 세 가지 측면에서 선정했다. 측정 지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아래의 변수설명과 같고,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표 1>의 세부적인 측정지표를 구성한 후 설문문항으로 구조화하여 활용했다.

① 종속변수

종속변수는 사회적 경제조직의 성과이다. 성과를 측정하는 것은 다양

4) 설문조사 당시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 경제조직은 319개였고, 설문조사에 필요한 대상자 확보는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사회적기업 개요집 319』를 활용했다. 또한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을 위한 아카데미가 전국 5개 권역으로 구분되어 실시되었고, 8개의 아카데미 중에서 7개 기관의 사회적 아카데미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의 동의를 구하여 아카데미 수강생과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이 실시되었다. 그리고 설문조사 당시 서울을 비롯한 개별 광역자치단체에서 사회적 경제조직을 전담하여 담당하는 공무원은 1~2명 내외였다.

5) 본 논문의 설문조사 응답자료는 필자의 학위논문인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사회적기업 활성화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의 원자료를 활용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경제조직의 성과를 사회적 경제조직이 추구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인식으로 설정했다.

사회적 경제조직이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는 정부나 시장이 해결했던 사회적, 환경적 윤리적 문제들을 사회적 경제조직이 서비스 수행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데서 출발한다(OTS, 2006; London and Morfopoulos, 2010). 사회적 경제조직이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는 보육 및 보호 중심의 사회복지 서비스, 방과 후 활동 및 특수교육 등의 교육서비스, 도서관·박물관 운영 등의 문화·예술 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다(김혜원, 2009; 이윤재, 2010). 사회적 경제조직의 사회서비스 제공은 사회적 경제조직의 성과이고, 전체 사회의 이익에 이바지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이라는 긍정적 결과를 가져온다(Peatil and Morley, 2008; 이영범·남승연, 2009; Domenico et al., 2010).

고용창출은 사회적 경제조직이 추구하는 중요한 가치이자 목표이다. 사회적 경제조직은 장기 실업자, 학습 장애가 있는 사람들, 전과자, 자격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유급 교육훈련을 포함 고용 기회 창출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Nelmes, 2004). 또한 사회적 경제조직은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고용 시장에 참가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빈곤과 실업에 대처하는 인프라 확산에서 긍정적 역할을 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 해소에도 기여한다(European Council, 2005; 이신모, 2009; 삼성경제연구소, 2009).

② 독립변수

정부 부문은 정부가 사회적 경제조직에 법·제도적 지원이나 정책적 지원, 재정지원, 전자정부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법적 지원은 정부가 사회적 경제조직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기존 관련법을 강화함으로써 사회적 경제조직이 다른 기업과는 다른 특수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사회적 경제조직에 관한 법률은 각 나라마다 명칭이 다르지만 법적 지위를 바탕으로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되었다(Johnson and Spear,

2006; KenDall, 2005). 재정적 지원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의미한다. 정부는 사회적 경제조직을 육성하기 위해 민간 은행을 통해 자본금을 지원하기도 하고, 사회적 경제조직에 자본금을 대출해 주기 위한 투자회사를 설립하며, 정부 차원에서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기도 한다 (Peattie and Morley, 2008; OECD 대표부, 2006; Johnson and Spear, 2006). 전자정부서비스는 정부가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업무의 편의와 효율성을 갖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 하는 것이다. 전자정부서비스는 대면접촉으로 인한 거래비용을 감소시켜 주고, 특히, 소규모 인력으로 운영되는 사회적 경제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가능하게 한다(Scholl, 2007; 정충식, 2007; Markellou et al., 2007; 김현성, 2010).

시민사회 부문은 시민사회에서 사회적 경제조직을 신뢰하거나 착한소비와 같은 윤리적 소비활동, 온라인 커뮤니티와 같은 소통을 통해 사회적 경제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자본으로서 신뢰는 행위자 사이의 관계에서 내재되어 있고, 개인 및 기관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사회자본의 수준이 높다. 사회적 경제조직이 성공하려면 행위자들 사이에 신뢰관계가 형성되어야 하고, 사회자본은 사회적 경제조직이 추구하는 공공적 가치를 이행하는 수단이 된다(Coleman, 1988; Paxton, 1999; Tani, 2009). 착한소비는 최근 등장한 용어로 공정무역 사회적 경제조직의 제품을 소비하거나 친환경 제품을 취급하는 사회적 경제조직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일반 영리기업이 생산한 제품이나 서비스보다는 사회적 경제조직이 생산하거나 유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여 공정하고 환경 친화적 구매활동을 하는 것이다(Nicolas and Opal, 2004; 현소은, 2009; 권은정, 2010; Huybrechts and Defourny, 2010). 소통은 사회체계 내에서 행위자들이 공통감에 의존해 인정의 원칙을 통해 각 행위자를 포용할 때 성립된다. 또한 소통은 온라인에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이러한 온라인 커뮤니티는 사회구성원들의 사회적 만남을 보장한다. 사회적 경제조직과 같은 소기업들은 소셜네트워킹서비스를 새로운 소통 전략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생산 제품의 거래

와 서비스 후기 등을 나누고 있다(Quan-Haase and Wellman, 2004; Tapscott, 2009; 삼성경제연구소, 2010).

기업 부문은 사회적 경제조직과 관계되는 일반 기업들의 기업 윤리, 협력·네트워크, 그리고 사회적 경제조직의 조직관리 등의 변수에 관한 것이다. 기업 윤리는 기업이 정상적인 이익추구 과정 이외에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다. 사회적 경제조직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감에 대한 기준을 높임으로써 윤리적 시장의 새로운 기준을 설정한다. 즉, 사회적 경제조직은 기업 윤리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확산을 유도하고, 일반 기업이 시장에서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데 촉매로서의 역할을 한다(Vogel, 2005; Visser et al., 2007; 박참임, 2008; Cornelius et al., 2008). 협력·네트워크는 일반 기업과 사회적 경제조직의 파트너십과 관계된 것이다. 사회적기업가는 주류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기업의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일반 기업도 사회적 경제조직에게 경영컨설팅, 교육훈련, 기술지원 등의 경영지원활동을 하고 있고, 경영지원은 전체 사회의 이익에 도움을 주어 고용촉진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의 위험감수와 활성화로 건전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다(Elkington and Hartigan, 2008; Porter and Kramer, 2011). 조직관리는 다른 일반 기업과는 달리 사회적 경제조직이 가지는 기업 운영상의 인력, 회계, 재무 등 경영 능력의 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사회적 경제조직이 조직 차원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조직관리가 요구된다. 전략적 조직관리는 사회적 경제조직의 전문성 확보, 인적자원관리, 경영시스템 구축 등이 해당된다. 이러한 전략적 조직관리는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여 사회적 경제조직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해 주고, 사회적 경제조직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기 때문이다(이정봉, 2010; Doherty et al., 2009; Darby and Jenkins, 2007; 홍일유, 2008). 아래 <표 1>은 사회적 경제조직의 성과요인을 밝혀내기 위한 변수와 세부 측정지표이다.

< 표 1 > 거버넌스 관점에서의 사회적 경제조직 성과요인에 관한 측정지표

변수	평가영역	측정지표	세부측정지표
종속 변수	사회서비스 제공		·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조직은 사회서비스를 잘 제공하고 있다.
	고용 창출		·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조직은 고용창출의 효과를 내고 있다.
독립 변수	정부 부문	법적 지원	· 정부의 사회적 경제조직의 인증제도는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 우리나라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내용은 적절하게 규정되어 있다.
		재정적 지원	· 우리나라 정부의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재정지원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전자정부 서비스	·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경제조직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나 전자정부서비스가 잘 구축되어 있다.
	시민사회 부문	신뢰(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신뢰)	· 전반적으로 볼 때 사회적 경제조직은 믿을 만하다. · 사회적 경제조직은 우리사회에 도움을 준다. · 사회적 경제조직의 거래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하다.
		착한 소비	· 공정무역은 제3세계의 발전에 기여한다. · 사회적 경제조직의 상품을 구매하는 것은 취약계층의 복지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 제3세계에서 만든 공정무역 상품을 구매하는 것은 친환경적 제품이기 때문이다.
		소통	· 온라인 커뮤니티는 사회적 경제조직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사회적 경제조직은 소비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소통한다. · 사회적 경제조직들의 온라인 커뮤니티는 사회적 경제조직 제품이나 서비스의 구매에 도움을 준다.
	기업 부문	기업 윤리	· 우리나라 기업은 공정거래 질서와 관련법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 우리나라 기업은 윤리적, 도덕적 규범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다. · 우리나라 기업은 기부, 자선활동, 지역사회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을 위해 노력한다.
		협력·네트워크	· 일반 기업과 사회적 경제조직은 상호간에 정보공유 등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 사회적 경제조직들 간에는 정보공유, 네트워크형성 등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 일반 기업은 사회적 경제조직에게 경영컨설팅, 교육훈련, 기술지원 등을 제공해 주고 있다.

변수	평가영역	측정지표	세부측정지표
		조직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경제조직 직원들은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 사회적 경제조직 직원들은 현재의 직장에 대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 사회적 경제조직 조직 내부의 경영시스템은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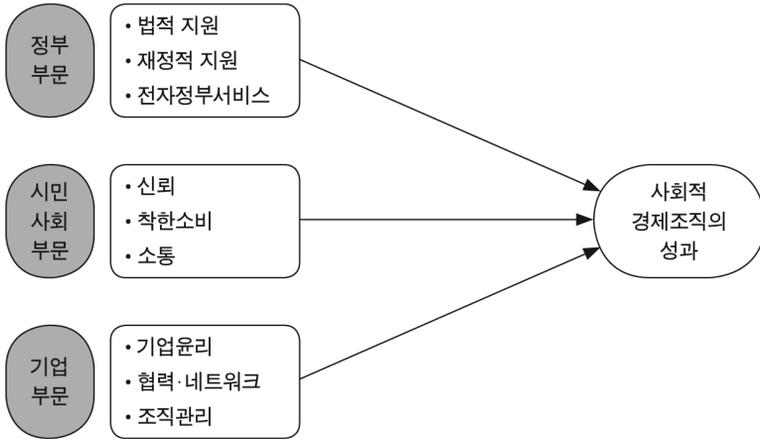
2) 연구의 분석틀

본 논문은 사회적 경제조직의 성과요인을 실증적으로 밝혀내어 향후 정부의 사회적 경제조직 관련 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동안 선행연구에서는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사례 연구와 단편적인 실증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이론연구, 국가 간 비교연구, 사회적기업 성공사례 연구,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이었다. 사회적 경제조직 연구에서 더욱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측면에서 실증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지만, 사회적 경제조직이 전국에 걸쳐 있고, 그 수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영 상태에 관한 자료가 충분히 공개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사회적 경제조직의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사회적 경제조직의 성과요인을 밝혀내고자 한다. 즉, 본 논문에서는 사회적 경제조직의 성과요인을 밝혀내기 위해 거버넌스 시각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사회적기업에 관계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확장했다. 또한, 그동안 사회적 경제조직 연구가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적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학, 사회학, 경영학 등의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었을 뿐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는 행정학적 시각의 연구는 부족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사회적 경제조직의 성과요인의 영향관계를 밝혀냄으로써 향후 사회적 경제조직 정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사회적 경제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그림 1> 연구의 분석틀



미치는 요인은 정부 부문, 시민사회 부문, 기업 부문의 세 가지 측면이다. 즉, 사회적 경제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① 정부 부문의 법적 지원, 재정적 지원, 전자정부 서비스가 있고, ② 시민사회 부문의 신뢰, 착한소비, 소통, ③ 기업 부문의 기업윤리, 협력·네트워크, 조직관리 등이 사회적기업의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세 측면과 사회적 경제조직의 성과와의 영향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의 분석틀을 제시하면 <그림 1>과 같다.

4. 실증분석

1) 응답자의 개인적 특성

<표 2>에서 설문 응답자의 개인적 특성을 살펴보면 총 응답자 297명 중에서 남성은 163명(54.9%)이고, 여성은 134명(45.1%)으로 남성이 많았다. 연령은 40~49세가 100명(33.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39

< 표 2 > 응답자의 개인적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163	54.9
	여성	134	45.1
연령	20~29세	42	14.1
	30~39세	97	32.7
	40~49세	100	33.7
	50~59세	44	14.8
	60세 이상	14	4.7
학력	고졸	37	12.5
	전문대졸	35	11.8
	대졸	166	55.9
	대학원졸 이상	59	19.9
소속	사회적기업가	31	10.4
	예비 사회적기업가	64	21.5
	사회 활동가	10	3.4
	사회적기업 담당 공무원	34	11.4
	사회적기업 지원기관 근무자	27	9.1
	사회적기업 종사자	55	18.5
	일반 시민	57	19.2
기타	19	6.4	
합계		297	100

세 97명(32.7%), 50~59세 44명(14.8%), 20~29세 42명(14.1%), 60세 이상이 14명(4.7%)의 순이었다. 학력은 대졸이 166명(55.9%)으로 가장 많았고, 대학원졸 이상이 59명(19.9%), 고졸이 37명(12.5%), 전문대졸이 35명(11.8%)이었다. 소속은 예비 사회적기업가가 64명(21.5%)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 시민이 57명(19.2%), 사회적기업 종사자가 55명(18.5%), 사회적기업 담당 공무원이 34명(11.4%), 사회적기업가 31명(10.4%), 사회적기업 지원기관 근무자 27명(9.1%), 기타가 19명(6.4%), 사회 활동가가 10명(3.4%)이었다.

2) 측정 변수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

실증분석에 앞서 주요변수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 분석을 실시했다. 신뢰도 분석은 사회과학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신뢰도 계수(Cronbach Alpha)를 사용했다. <표 3>의 신뢰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신뢰도 계수 값이 0.695에서 0.857까지 나타나 문항의 내적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었다.

또한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했다. <표 1>에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각 문항에 대한 요인부하량이 0.600에서 0.904까지 나타났다. 표본의 적절성을 측정하는 KMO 값이 0.843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변인들 간의 상관성이 0인지를 검정하는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의 근사 카이제곱값이 2893.810(df=231, p=0.000)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0.1% 내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유값(eigen value)은 모두 1.63에서 2.35까지 나타나 모두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요인추출 방법은 주성분분석을 사용했고 회전방법은 베리맥스이며 7번 반복계산에서 요인회전이 수렴되었다. 요인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모두 8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구체적으로 요인 1은 사회적 경제조직의 성과, 요인 2는 신뢰, 요인 3은 착한소비, 요인 4는 소통, 요인 5는 법적 지원, 요인 6은 기업윤리, 요인 7은 협력·네트워크, 요인 8은 조직관리이다. 더불어 요인분석에 독립변수의 상쇄효과를 방지하고 향후 회귀분석을 위해 요인점수를 활용하고자 한다.⁶⁾

6) 본 논문의 요인분석에서는 정부부문의 재정적 지원과 전자정부서비스에 대한 변수는 단일 문항으로 측정하여 요인분석에서 제외했음을 밝힌다. 그러나 이후 실증분석에서는 사회적 경제조직의 성과요인의 영향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과 회귀분석의 독립변수로 활용했다.

< 표 3 > 주요 변수의 신뢰도와 타당도 분석 결과

문항	요인 분석								신뢰도 분석	
	1	2	3	4	5	6	7	8	변수명	Cronbach α
사회서비스 제공	.701	.195	.050	.123	.161	.025	.108	.306	사회적 경제조직의 성과	.700
고용창출	.810	.120	.184	.032	.125	.149	.022	.163		
신뢰 1	.103	.842	.214	.104	.137	.075	-.032	.186	신뢰	.786
신뢰 2	.267	.601	.386	.123	.209	-.088	.123	.042		
신뢰 3	.121	.616	.415	.205	.034	.115	-.029	.206		
소비 4	.281	.122	.745	.164	.057	-.053	-.029	-.012	착한 소비	.695
소비 5	.161	.297	.697	.129	.124	-.042	.102	-.048		
소비 6	-.185	.174	.733	.161	.069	.046	.010	.232		
소통 7	-.004	.067	.209	.851	.075	.085	.009	.106	소통	.767
소통 8	.063	.522	.059	.600	.091	-.007	.229	.147		
소통 9	.146	.143	.200	.764	.121	.092	.170	.058		
법적 10	.087	.173	.141	.118	.876	.154	.064	.096	법적 지원	.857
법적 11	.173	.089	.088	.105	.873	.163	.134	.045		
기업 14	.084	.031	-.084	.032	.192	.869	.116	.079	기업 윤리	.849
기업 15	-.002	.028	.003	.043	.146	.904	.190	.094		
기업 16	.117	.032	.058	.133	-.022	.686	.396	.077		
협력 17	-.008	-.010	-.005	.074	.081	.253	.815	.144	협력·네트워크	.748
협력 18	.235	.138	.064	.189	-.017	.075	.670	.170		
협력 19	-.067	-.029	.016	.014	.176	.272	.758	.181		
조직 20	.170	.054	.028	.068	.094	.046	.223	.781	조직 관리	.806
조직 21	.276	.287	.016	.096	-.009	.011	.138	.727		
조직 22	.040	.076	.124	.088	.060	.193	.135	.838		
Eigen value	1.63	2.08	2.13	1.93	1.79	2.35	2.12	2.25		
분산 설명(%)	7.42	9.47	9.66	8.77	8.16	10.68	9.66	10.22		

주: KMO(Kaiser-Meyer-Olkin) 측도= .843 Bartlett= 2893.810 df= 231 p= 0.000

요인추출방법: 주성분분석

회전방법: kasi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맥스

7번 반복계산에서 요인회전 수렴

3) 사회적 경제조직의 성과에 대한 인식

본 논문에서 사회적 경제조직의 성과는 사회적 경제조직이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과 고용창출에 대한 인식이다. 설문에서는 응답자에게 사회서비스 제공과 고용창출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질문했고, 사용된 척도는 리커트 5점 척도를 활용했다. 여기에서 최솟값은 ‘전혀 그렇지 않다’가 1이고 최댓값은 ‘매우 그렇다’로 5이다. 사회적 경제조직의 성과 인식에 대한 기술통계 결과를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표 4> 사회적 경제조직의 성과에 대한 인식

구 분		N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 편차	전체 평균	전체 표준편차
사회적 경제조직의 성과	사회서비스 제공	297	1	5	3.17	.785	3.29	.678
	고용창출	297	1	5	3.42	.871		

먼저, 사회서비스 제공에 대한 인식은 평균 3.17로 나타나 다소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즉, 응답자들은 사회적기업이 복지, 빈곤해결, 문화, 교육 등의 사회서비스 제공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고용창출 효과에 대한 인식에서도 평균이 3.42로 나타나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경제조직이 추구하는 고용창출 목표에 따라 고용창출의 효과가 크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평균값을 볼 때 응답자들은 사회적 경제조직의 성과 중에서 사회서비스 제공보다는 고용창출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변수계산을 통한 사회적 경제조직의 성과에 대한 인식의 평균값은 3.29로 보통 이상의 값을 나타내고 있어 다소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⁷⁾

7) 사회적 경제조직의 성과에 대해 집단별로 인식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해 보았다. 또한 사회서비스 제공과 고용창출에 대해서도 집단별 인식 차이가 존재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4) 사회적 경제조직의 성과요인에 대한 인식

(1) 정부 부문

<표 5>는 사회적 경제조직의 성과요인으로서 정부 부문에 대한 설문은 정부가 제공하는 법적 지원, 재정적 지원, 전자정부서비스 구축 등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것이다. 먼저 법적 지원은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인증제도와 사회적기업 육성법 규정이 잘 운영되고 있는가를 질문한 것이다. 법적 지원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평균이 2.93으로 보통 이하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정부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증제도 운영이나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못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다음으로 재정적 지원은 정부가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적절하게 하고 있는가를 질문한 것이다. 재정적 지원의 평균값은 2.71로 나타나 다소 부정적인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응답자들은 현재 정부의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인건비 중심 지원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마지막은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전자정부서비스 구축을 질문한 것이다. 평균값이 2.65로 나타나 응답자들은 사회적 경제조직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전자정부서비스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5> 정부 부문에 대한 인식

구 분	N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법적 지원	297	1	5	2.93	.774
재정적 지원	297	1	5	2.71	.768
전자정부서비스	297	1	5	2.65	.805

(2) 시민사회 부문

<표 6>의 시민사회 부문은 응답자들에게 신뢰, 착한소비, 소통 등에 대한 인식을 질문한 것이다. 신뢰는 시민사회에서 사회적 경제조직을 신뢰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한 것이다. 평균값이 3.79로 나타나 응답

<표 6> 시민사회 부문에 대한 인식

구 분	N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신뢰	297	2	5	3.79	.627
착한소비	297	2	5	3.76	.638
소통	297	1.33	5	3.40	.697

자들은 대부분 사회적 경제조직을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착한소비는 윤리적 소비나 공정무역 상품, 사회적 경제조직이 생산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비하는 것을 말한다. 착한소비에 대한 응답에서도 평균값이 3.76으로 나타나 착한소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소통은 시민사회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사회적 경제조직과 소비자의 소통, 인터넷에서 사회적 경제조직의 제품과 서비스 거래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질문한 것이다. 소통에 대한 평균값은 3.40으로 나타나 응답자들은 긍정적인 인식을 나타내고 있었다.

(3) 기업 부문에 대한 인식

<표 7>의 기업 부문은 일반 기업들이 기업윤리를 준수하고 있는지, 그리고 일반 기업과 사회적 경제조직이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지, 사회적 경제조직이 조직관리로써 조직역량을 구축하고 있는가를 질문한 것이다. 기업윤리는 일반 기업들이 기업윤리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을 다하고 있는가에 대한 인식을 질문한 것이다. 응답결과를 보면 평균값이 2.67로 나타나 다소 부정적인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이는 아직까지 일반 기업들이 범규준수, 윤리적 책임, 사회공헌 활동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다음으로 협력·네트워크는 사회적 경제조직과 일반 기업의 협력, 사회적 경제조직간 협력, 일반기업들의 지원활동 등에 대한 질문이다. 평균값을 보면 2.65로 나타나 다소 부정적인 의견이 많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경제조직과 일반 기업들의 협력이 강조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협

<표 7> 기업 부문에 대한 인식

구 분	N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기업윤리	297	1	4.67	2.67	.719
협력·네트워크	297	2	4.33	2.65	.650
조직관리	297	1.33	5	2.96	.725

력·네트워크가 부족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조직관리는 사회적 경제조직 내부의 전문성, 사회적 경제조직 직원들의 태도, 조직 내 경영시스템 구축에 대한 것을 질문한 것이다. 평균값을 보면 2.96으로 나타나 사회적 경제조직 내부적으로 조직역량이 부족함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사회적 경제조직이 사회적 배제자나 취약계층으로 구성된 만큼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과 같은 기업 조직으로서의 역량을 갖추고 있지 못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5) 사회적 경제조직의 성과에 대한 영향 분석

(1) 주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

본 논문에서는 사회적 경제조직의 성과요인 분석에 앞서 주요 변수들 간의 관련성과 방향을 파악하기 위해 단순상관관계분석을 실시했다. 상관관계분석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Pearson 상관 계수를 이용했다. 상관 계수는 1.0이나 -1.0이면 매우 강한 관련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고, 0.0에 가까우면 관련성이 없다고 해석한다.

<표 8>을 보면, 모든 변수들이 정(+의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다. 가장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변수는 착한소비와 신뢰로 상관 계수 값이 0.625로 나타났고, 법적 지원과 제도적 지원이 0.621, 전자정부서비스와 재정적 지원이 0.597, 전자정부서비스와 법적 지원이 0.543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낮은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은 기업윤리와 착한소비로 0.040이고, 다음으로 협력·네트워크와 착한소비가 0.115, 기업윤리와

<표 8> 주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

변수명	X1	X2	X3	X4	X5	X6	X7	X8	X9	Y
법적 지원(X1)	1									
재정적 지원(X2)	.621**	1								
전자정부서비스(X3)	.543**	.597**	1							
신뢰(X4)	.375**	.229**	.188**	1						
착한소비(X5)	.285**	.177**	.172**	.625**	1					
소통(X6)	.323**	.253**	.306**	.519**	.461**	1				
기업윤리(X7)	.331**	.301**	.415**	.126*	.040	.219**	1			
협력·네트워크(X8)	.277**	.312**	.404**	.170**	.115*	.322**	.504**	1		
조직관리(X9)	.231**	.200**	.221**	.391**	.222**	.326**	.275**	.413**	1	
사회적 경제조직의 성과(Y)	.379**	.225**	.251**	.398**	.262**	.274**	.356**	.342**	.467**	1

* P<0.05

** P<0.001

신뢰가 0.126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사회적 경제조직의 성과와 관련된 상관계수보다 재정적 지원, 전자정부서비스, 소통 등 독립변수의 상관계수가 높아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회귀분석에서는 제외했다. 즉, 회귀분석에서 다중공선성으로 인하여 9개의 독립변수를 모두 투입시켰을 경우 회귀모형은 $R^2=.242$, adj. $R^2=.219$, $t=15.437$ 이었다. 그리고 순차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제외했을 경우 회귀모형은 $R^2=.242$, adj. $R^2=.221$, $t=19.450$ 이었고, 전자정부서비스를 제외했을 경우 회귀모형은 $R^2=.242$, adj. $R^2=.224$, $t=86.272$ 로 나타났다. 소통모형을 제외한 경우 회귀모형은 $R^2=.240$, adj. $R^2=.225$, $t=86.310$ 으로 나타났다. 결국,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이 있는 재정적 지원, 전자정부서비스, 소통의 변수를 제거한 후 회귀모형의 설명력이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사회적 경제조직의 성과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본 논문에서는 앞서 상관관계 분석에서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이 있는 독립변수들을 제외하고, 사회적 경제조직 성과의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조직의 성과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했다. 사회적 경제조직의 성과요인의 독립변수는 앞서 요인분석에서 추출한 요인점수를 활용했다. <표 9>의 다중회귀분석 결과에서 모형의 타당성은 $F=15.300$, 유의확률은 0.000으로 유의수준 1%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R^2=.240$ 로 24%의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다.

<표 9>에서 더욱더 구체적인 사회적 경제조직 성과요인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개별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과 통계적 유의성 검정결과, 유의수준 5%에서 사회적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법적 지원($t=3.487$, $p=.001$), 신뢰($t=2.872$, $p=.004$), 착한소비($t=2.636$, $p=.009$), 기업윤리($t=5.038$, $p=.000$), 협력·네트워크($t=2.768$, $p=.006$), 조직관리($t=5.604$, $p=.000$) 등이다. 또한 독립변수의 상대적 기여도를 나타내는 표준화 계수를 보면 조직관리, 기업윤리, 법적지원, 신뢰, 협력·네트워크, 착한소비의 순서로 사회적 경제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경제조직의 성과요인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사회적 경제조직의 성과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법적 지원, 신뢰, 착한소비, 기업윤리, 협력·네트워크, 조직관리 등이다. 이들 독립변수는 종속변수인 사회적 경제조직의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법적 지원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적 경제조직에 지원하고 있는 각종 지원제도 등이 사회적 경제조직의 성과에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신뢰의 경우 사회적 경제조직의 활동에 대한 신뢰 수준이 곧 사회적 경제조직의 성과를 나타내는 것이고, 착한소비의 경우는 윤리적 소비와 같이 사회적 경제조직 생산품과 서비스가 소비활동으로 나타

<표 9> 사회적 경제조직의 성과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준 오차	베타			공차	VIF
(상수)	2.992	.035		86.310	.000		
법적 지원	.121	.035	.178	3.487	.001	1.000	1.000
신뢰	.100	.035	.147	2.872	.004	1.000	1.000
착한소비	.086	.035	.135	2.636	.009	1.000	1.000
기업윤리	.161	.035	.258	5.038	.000	1.000	1.000
협력·네트워크	.081	.035	.142	2.768	.006	1.000	1.000
조직관리	.188	.035	.287	5.604	.000	1.000	1.000

주: $R^2 = .240$ adj. $R^2 = .225$ $F = 15.300$ $p = 0.000$ Durbin-Watson = 1.933

종속변수: 사회적 경제조직의 성과

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내는 것이다. 기업윤리는 사회적 경제조직의 기업 활동이 일반 기업의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에 영향을 줌으로써 사회적 경제조직의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협력·네트워크가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낸 것은 사회적 경제조직의 협력적 기업 활동과 네트워크가 잘 갖추어져 있을수록 성과 또한 향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조직관리의 경우는 사회적 경제조직의 역량과 관계된 것으로 조직의 역량이 높을수록 사회적 경제조직의 성과 역시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5.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신자유주의 시장경제 체제는 1980년대 이후 서구사회에서 시작되어 많은 나라들이 관련 정책을 도입했다. 한국도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도입했지만 빈곤, 실업, 복지 등의 사회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양극화를 가중시켰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자본주의는 그동안의 승자독식, 경쟁, 성과지향과 같은 가치를 벗어나 사회에서 공생과

조화를 추구하고, 시장 참여자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며 ‘다 같이 행복한 성장’을 목표로 하는 자본주의 4.0으로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Kaletsky, 2010).

사회적 경제조직은 정부실패와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제3의길 혹은 새로운 대안적 해결방식으로 등장했다. 사회적 경제조직은 본래 정부와 시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공익성과 수익성 추구를 목표로 시민사회에서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집단 혹은 조직이다. 한국에서는 사회적 경제조직이 정부의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사회적 경제조직을 육성하기 위해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과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을 제정하여 다양한 정책적 지원과 함께 5,500개소 이상의 사회적 경제조직이 설립되었다. 정부의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목표는 사회서비스 제공과 고용창출에 있다. 즉, 사회적 경제조직의 성과는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과 지속적인 고용창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사회적 경제조직의 성과와 관련하여 조직 자체에 초점을 둔 연구가 대부분이었고, 사회적 경제조직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고려한 실증연구가 부족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경제조직의 성과요인을 밝혀내기 위해 거버넌스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사회적 경제조직의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실증분석 결과 사회적 경제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정부 부문의 법적 지원, 시민사회 부문의 신뢰, 착한소비, 기업 부문의 기업윤리, 협력·네트워크, 조직관리 등이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정부의 사회적 경제조직의 관련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법적 지원에 대한 변경이 필요하다. 분석 결과에서 법적 지원이 사회적 경제조직의 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지금까지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을 위해 정부에서는 『사회적기업육성법』과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사회적 경제조직 인증제도 운영, 인건비 지원, 조세감면, 공공기관 우선 구매 등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3년의 인건비 지원이 중단되고 나면 재정난을 겪고 폐업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즉, 현재 정부에서 법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인건비 지원과 같은 직접적인 재정지원 제도보다는 간접적인 방식의 운영 지원금 형식의 재정지원 제도로 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2012년 12월부터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부처에 따라 정부지원 정책에 변화와 혼란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사회적 경제조직의 범위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통합된 새로운 법적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관련부처 간의 사회적 경제조직 지원정책에 대한 중복과 혼선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전자정부서비스 시스템 구축에 대한 인식은 2.65로 나타나 사회적 경제조직이 정부와 업무처리에 있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사회적 경제조직이 정부와 업무처리는 물론 조직 내 원활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전자정부서비스 시스템 혹은 업무처리시스템 구축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한다.

둘째, 시민사회에서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되도록 해야 한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신뢰와 착한소비가 사회적 경제조직의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경제조직이 지향하는 공익성과 공공성의 가치와 관련하여 사회적 경제조직이 사회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착한소비 역시 최근의 소비자들의 소비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공정무역 상품이나 사회적 경제조직의 제품에 대해 호의적인 시각을 반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사회적 경제조직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시민사회에서 활발하게 거래되고 소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조치로는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제도와 중앙정부나 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사업에 참여하여 사회적 경제조직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공기관에서 사용하고, 공공서비스 전달에 사회적 경제조직을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소비자들이 사회적 경제조직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세금감면이나 소득공제 등을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조치도 필요하다. 그리고 소통이 사회적 경제조직의 성과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지는 않았지만, 소통의 인식이 3.40으로 긍정적이었다. 그러므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를 포함하는 인터넷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부처 홈페이지나 민간기업의 포털사이트와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기업 부문에서는 기업윤리의 제고, 협력·네트워크의 강화, 전략적 조직관리 노력이 필요하다. 분석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기업윤리, 협력·네트워크, 조직관리 등의 변수 모두가 사회적 경제조직의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윤리의 경우 평균값이 2.67로 다소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사회에서 일반 기업들이 기업윤리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정부는 기업윤리 확산을 위해 기업윤리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는 기업에게 조세감면이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 지수 등을 통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기업윤리를 준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한 사회적 경제조직과 일반 기업의 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 협력·네트워크에 대한 인식 평균값은 2.65로 저조하게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있는 제15조 연계기업의 책임 한계, 제16조 연계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 등의 규정이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부는 일반 기업과 사회적 경제조직이 협력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좀 더 효과적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일반 기업도 직원과 협력업체, 지역사회, 국가의 이익과 번영을 위한 공유가치창조(Creating Shared Value: CSV)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Porter and Kramer, 2011). 또한 사회적 경제조직도 자체적인 전략적 조직관리가 필요하다. 사회적 경제조직은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과는 달리 조직역량이 취약한 것이 일반적이다. 분석 결과에서도 조직관리 변수의 영향력 순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적 경제조직은 자체적인 조직역량을 강화를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성 배양, 직원들의 자긍심 고취, 경영시스템 도입 등의 노력이 필요

하다.

지금까지 사회적 경제조직의 성과요인 밝혀내기 위해 거버넌스적 관점에서 접근했다. 그러나 사회적 경제조직의 다양한 업종이나 지역별 사회적 경제조직의 특성을 고려한 더욱 심층적인 연구가 수행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또한 분석 결과를 각 정부부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커뮤니티 비즈니스, 농어촌공동체회사 등에 적합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경제조직의 성과를 사회서비스 제공과 고용창출에 한정지어 사회적 경제조직이 가지는 사회적 가치(social values)를 담아내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각 부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유사한 정책에 적합한 좀 더 정교한 모형 개발과 사회적 경제조직의 다양성을 포함할 수 있는 성과지표 등의 개발을 통한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원고접수일: 2014년 4월 12일

심사완료일: 2014년 5월 19일

게재확정일: 2014년 5월 20일

최종원고접수일: 2014년 6월 1일

❖ Abstract

Analysis of the Performance Factors of the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in the Governance Perspective

Kang, Byoung-Jun

Building Governance, the interaction among civil society, government and enterprise, is strongly required to active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This research approached from the governance view in order to find out for the performance factor of the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The factor having an effect on the result of the empirical analysis result social company is as follows. The legal support of the government section, civil society section trust and ethical consumption, and business ethics of the company section and cooperation·network and organization management reached the statistically meaningful effect. As follows, the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direction of policy was presented based on the analyzed result.

First, in the government section, the legal support has to be tighten up the certification system of the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and integration of law. Second, in the civil society section, the positive awareness of the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are expanded to the trust of the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and diffusion of ethical consumption. Also Government procurement system utilization and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are participated in the business of government contracting-out is needed. Third, in the company section, enhancing the business ethics o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ooperation·network strength of the general company and social enterprise, and the strategic organization management for organization capacity of the social company is required.

Keywords: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Governance, Performance Factor of
Social Economic Organizations, Enterprise Connection, Contracting-out
participate

참고문헌

- 관계부처합동. 2011.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 과천: 고용노동부.
- _____. 2012.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과 향후 정책 방향』. 과천: 기획재정부.
- 권기현. 2008. 『정책학: 현대 정책이론의 창조적 탐색』. 서울: 박영사.
- 권은정. 2010. 『착한 기업 이야기』. 서울: 웅진지식하우스.
- 고용노동부. 2010.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 비상경제대책회의 겸 국가고용전략회의 자료집』. 과천: 고용노동부.
- 김경휘·반정호. 2006. 『한국 상황에서 사회적기업의 개념과 유형에 관한 소고』. 《노동정책연구》, 6(42), 31~54쪽.
- 김도균·정선기. 2014. 『사회적 경제조직의 활동과 지역의 사회자본 확장: 대전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25(1), 281~306쪽.
- 김미경. 2008. 『뉴거버넌스 연구방향과 인식과제: Good Governance의 형성과 우리사회의 참여와 민관협력을 위한 논의』. 오수길 편. 2008. 『미래로 가는 길 뉴거버넌스』. 서울: 대영문화사.
- 김운호. 2010. 『사회적기업은 재분배 정책인가 분배 정책인가?: 인증 사회적기업의 유형화, 실증적 비교분석, 그리고 육성방안』. 《한국정책학회보》, 19(4), 211~248쪽.
- 김석준 외. 2001. 『뉴거버넌스와 사이버 거버넌스 연구』. 서울: 대영문화사.
- 김정원. 2009. 『사회적기업이란 무엇인가?』. 서울: 아르케.
- 김종수. 2009. 『지역기반형 사회적기업의 태동과 운영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재홍·이재기. 2012. 『사회적기업의 경제적·사회적 성과분석: 정부지원금의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24(4), 1037~1064쪽.
- 김태영. 2012.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공동체정신』. 《도시행정학보》, 25(3), 31~64쪽.
- 김혁. 2010. 『거버넌스와 인터넷 시민참여 제도화』. 《한국정당학회보》, 9(1), 121~147쪽.
- 김현성. 2010. 『공무원 정보화의 개념 재정립 및 정보화사업 유형분류에 관한 고찰』.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13(1), 1~23쪽.
- 김혜원. 2009. 『한국 사회적기업정책의 형성과 전망』. 《동향과 전망》, 75, 74~108쪽.
- 남승연·이영범. 2008.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의 유형화와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 34(3), 29~60쪽.

- 남승연·조창현·정무권. 2010. 「사회적기업의 개념화와 유형화 논쟁」. 《창조와 혁신》, 3(2), 129~173쪽.
- 문화일보. 2014.1.6. <‘착한 경제, 사회적기업 1000개 시대’ 지원 끊기자 순위 87% ↓ 착한기업, 자생력 키워야>.
- 박경하·도수관·윤남희·이현미. 2014. 「한국의 사회적 경제조직 지원정책 사례 연구」.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457~500쪽.
- 박은미. 2009. 「의사소통과 실존적 상호소통: 하버마스와 아스퍼스 소통 개념에 관하여」. 《시대와 철학》, 20(3), 265~309쪽.
- 박찬임. 2008. 「사회적기업의 현재적 의미」. 《월간 복지동향》, 120, 5~10쪽.
- 삼성경제연구소. 2009. 「청년 실업을 위한 사회적기업의 역할」. 《SERI 경제 포커스》, 272, 1~22쪽.
- _____. 2010. 「확산되는 소셜 미디어와 기업의 新소통 전략」. 《CEO Information》, 764, 1~24쪽.
- 신동면. 2009. 「경제위기 이후 이명박 정부 사회복지정책의 평가와 대안」. 《한국정책학회보》, 18(4), 269~295쪽.
- 심창학. 2007. 「사회적기업의 개념 정의 및 범위 설정에 관한 연구: 유럽의 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23(2), 61~85쪽.
- 엄형식. 2005. 「유럽적 의미의 사회적기업 개념과 시사점」. 《도시와 빈곤》, 76, 78~115쪽.
- 엘지경제연구원. 2009. 「사회적기업의 지속 성장 가능성」. 『LG Business Insight 2009』, 41~50쪽.
- OECD 대표부. 2006. 『OECD 국가의 사회적기업과 시사점』.
- 유병선. 2010. 『보노보 혁명: 제4섹터 사회적기업의 아름다운 반란』. 서울: 도서출판 부키.
- 이광우. 2008.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의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광택. 2008.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및 시행 후의 발전방향」. 《법학논총》, 20(20), 33~72쪽.
- 이도형·함요상. 2010. 「제3부문의 가치 발견과 활성화 전략: 생활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16(1), 181~214쪽.
- 이명석. 2002. 「거버넌스의 개념화: ‘사회적 조정’으로서의 거버넌스」. 《한국행정학보》, 36(4), 321~338쪽.
- _____. 2007. 「행정학 패러다임과 거버넌스」. 《국정관리연구》, 2(2), 3~30쪽.
- 이신모. 2009. 「사회적기업 창업을 통한 청년실업해소」. 『2009년 한국경영학회 통합 학술대회 논문집』, 1~24쪽.
- 이영범·남승연. 2009. 「사회서비스 시장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의 문제점과 발전방

- 안, 《한국공공관리학보》, 23(2), 99~126쪽.
- 이윤재. 2010. 『사회적기업 경제』. 서울: 탐복스.
- 이은선. 2009. 『사회적기업의 특성에 관한 비교 연구: 영국, 미국, 한국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47(4), 363~397쪽.
- 이은애. 2009. 『사회적기업활성화: 정부·시민사회협력은 사회적기업 성공 전제』. 《도시문제》, 44(490), 27~31쪽.
- 이종수. 2010. 『새 미래의 행정』. 서울: 대영문화사.
- 임준형. 2013. 『광주시 사회적기업의 수출기업화 요인: AHP 이용』. 《산업경제연구》, 26(2), 961~981쪽.
- 은재호. 2009. 『거버넌스의 이해』. 은재호·오수길 편. 2009. 『한국의 협력적 거버넌스』. 서울: 대영문화사.
- 장원봉. 2009. 『한국 사회적기업의 실태와 전망』. 《동향과 전망》, 75, 47~73쪽.
- 장인봉·장원봉. 2008. 『공동생산자(Co-producer)로서 지방정부와 사회적기업의 파트너십(Partnership) 형성과 전망』.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5(3), 299~320쪽.
- 정충식. 2007. 『전자정부론』. 서울: 서울경제경영출판사.
- 조영복. 2010.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 《서울경제》, 61, 5~16쪽.
- 주성수. 2010. 『사회적 경제: 이론, 제도 정책』.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부.
- 채종현. 2011.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기업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 최종태 외. 2008. 『사회적기업, 새로운 세계: 미국 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서울: 실업극복국민재단 정책연구원.
- KBS. 2012.7.26. <위기의 사회적기업... 해법 모색>.
- 한승준. 2007. 『신거버넌스 논의의 이론적, 실제적 한계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41(3), 95~116쪽.
- 홍일유. 2008. 『디지털 기업을 위한 경영정보시스템』. 서울: 법문사.
- 홍현미라. 2008. 『사회적기업의 지역사회 접근전략에 관한 탐색적 연구』. 《전주대학교 사회과학논총》, 23(2), 1~21쪽.

- Alter, Kim. 2007. *Social Enterprise Typology*. Virtue Ventures LLC.
- Ansell, Chris and Alison Gash. 2008. "Collaborative Governance in Theory and Practice."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18(3), pp. 543~571.
- Auteri, M. 2003. "The Entrepreneurial Establishment of a Nonprofit Organization." *Public Organization Review*, 3(2), pp. 171~189.
- Billis, David. 2010. "Towards a Theory of Hybrid Organizations." in David Billis(ed.). *Hybrid Organizations and the Third Sector*.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Borzaga, Carlo and Alceste Santuari. 2001. "Italy: From Traditional Co-operatives to

- Innovative Social Enterprise.” in Carlo Borzaga and Jacques Defourny(eds.). *The Emergence of Social Enterprise*. London: Routledge.
- Borzaga, Carlo and Jacques Defourny(eds.). 2001. *The Emergence of Social Enterprise*. New York: Routledge.
- Campi, Sara, Jacques Defourny and Oliver Gregoire. 2006. “Work Integration social enterprise: are they multiple-goal and multi-stakeholder organizations?” in Mathe Nyssens(ed.). 2006. *Social Enterprise: At the Crossroads of Market, Public Policies Civil Society*. New York: Routledge. pp. 29~49.
- Chang, Ha-Joon. 2009. *23 Things They Don't Tell You About Capitalism*. (김희정·안세민 옮김. 2010.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장하준, 더 나은 자본주의를 말한다』. 서울: 부키)
- Coleman, James S.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3), pp. 95~120.
- Cornelius et al. 2008.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the Social Enterprise.” *Journal of Business Ethics*, 81(2), pp. 355~370.
- Darby, Lauren and Heledd Jenkins. 2006. “Applying substantiality indicators to the social enterprise business model: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an indicator set for Newport Wastesavers, Wales.”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Economics*, 33(5/6), pp. 411~431.
- Defourny, Jacques. 2001. “From third sector to social enterprise.” in Carlo Borzaga and Jacques Defourny(eds.). *The Emergence of Social Enterprise*. New York: Routledge.
- Defourny, Jacques and Marthe Nyssens(eds.). 2008. “Social Enterprise in Europe: Recent Trends and Developments.” Working Papers Series, no. 08/01, Liège: EMES European Research Network.
- Diochon, Monica C. 2010. “Governance, entrepreneurship and effectiveness: exploring the link.” *Social Enterprise Journal*, 6(2), pp. 93~109.
- Doherty, Bob et al. 2009. *Management for Social Enterprise*. London: Sage Press.
- Domenico, MariaLaura Di, Helen Hugh and Paul Tracey. 2010. “Social Bricolage: Theorizing Social Value Creation in Social Enterprise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34(2), pp. 681~703.
- DTI(Department for Trade and Industry). 2002. *Social Enterprise Strategy for Success*. DTI: London.
- Elkington, J. and P. Hartigan. 2008. *The Power of Unreasonable People, Schwab Foundation for Social Entrepreneurship*. (강성구 역. 2008. 『비이성적인 사람들의 힘』. 서울: 에이지21)
- Evers, A., J. L. Laville, C. Borzaga, J. Defourny, J. Lewis, M. Nyssens and V. Pestoff.

2004. "Defining the Third Sector in Europe." in A. Evers and J. L. Lavelle(eds.). *The Third Sector In Europe*. Edward Elgar: London.
- European Council. 2005. *Presidency Conclusions, European Council Brussels*. Concl 1. 7619/1/05.
- Giddens, Anthony. 1998. *The Third Way: The Renewal of Social Democracy*. (한상진·박찬욱 옮김. 2008. 『제3의 길』. 서울: 생각의 나무)
- Hyden, Goran. 1999. "Governance and the Reconstitution of Political Order." in Richard Joseph(ed.). *State, Conflict, and Democracy in Africa*. Boulder, CO: Lynne Rienner.
- Huybchts, Benjamin and Jacques Deforuny. 2010. *Exploring The Diversity of Fair Trade Social Enterprises*, pp. 1~21.
- Johnson, Toby and Roger Spear. 2006. *Social Enterprise International Literature Review*. UK DTI Press. (조영복 외 옮김. 2009. 『사회적기업의 국가별 정책과 전략』. 부산: 사회적기업연구원)
- Kaletsy, Anatole. 2010. *Capitalism 4.0: The Birth of a New Economy*. Bloombury Publishing. (위선주 옮김. 2011. 『자본주의 4.0』. 서울: 컬처앤스토리)
- Kerlin, J. 2010.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Global Emergence of Social Enterprise." *Voluntas*, 21(2), pp. 162~179.
- Kjaer, Anne Mette. 2004. *Governance*. Cambridge: Polity Press. (이유진 옮김. 2007. 『거버넌스』. 서울: 도서출판 흐름)
- Kooiman, Jan. 2003. "Models of Governance." in J. Kooiman(ed.). *Governing as Governance*. London: Sage Press.
- London, Manuel and Richard G. Morfopoulos. 2010. *Social Entrepreneurship: How to Start Successful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Community-Based Initiatives for Advocacy and Change*. New York: Routledge.
- Markellous et al. 2007. "Semantic Web Mining for Personalized Public E-Services." in Latif Al-Hakim(ed.). *Global E-Government: Theory, Applications and Benchmarking*. Hershey: Idea Group Publishing.
- Martin, Frank and Marcus Thompson. 2010. *Social Enterprise: Developing Sustainable Business*. London: Palgrave Macmillan.
- McCray, Janet. 2009. "Social enterprise: A new challenge for nursing practice and collaborative partnerships."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46(2), pp. 151~153.
- Nakagawa, Sachiko and Rosario Laratta. 2010. "How can co-operative banks spread the spirit of co-operation in deprived communities?" *Social Enterprise Journal*, 6(2), pp. 162~180.
- Nelmes, A. 2004. *Community groups target social agenda, Resource* (March-April).
- Nicholls, A. and C. Opal. 2004. *Fair Trade: Market-driven ethical consumption*. London and Thousand Oaks: Sage Press.

- Nishiyama Yasuo and Nishiyama Yaeko. 2008. 김영훈 외 옮김. 2009. 『영국의 거버넌스 형 마을 만들기: 사회적기업에 의한 도시 재생』. 서울: 기문당.
- OECD. 1999. *Social Enterprise*. Paris: OECD.
- _____. 2009. *The Changing Boundaries of Social Enterprise*. Paris: OECD.
- OTS. 2006. *Social Enterprise Action Plan: Scaling New Heights*. London: Office of the Third Sector.
- Paxton, P. 1999. "Is Social Capital declining in the Unites States?: A Multiple Indicator Assessment."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5(1), pp. 88~127.
- Peartil, Ken and Adrian Morley. 2008. *Social Enterprises: Diversity and Dynamics, Contexts and Contributions*. Swindon: Cardiff University Press. (조영복 외 옮김. 2009. 『사회적기업: 다양성과 역동성, 배경과 공헌』. 부산: 사회적기업연구원)
- Peters, G. and J. Pierre. 2005. "Toward a Theory of Governance." in G. Peters and J. Pierre(eds.). *Governing Complex Societies Governance: New Government-Society Interaction*.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Pierre, Jon and B. Guy Peters. 2000. *Governance, Politics and the State*. New York: St. Martin's Press. (정용덕 외 옮김. 2003. 『거버넌스, 정치 그리고 국가』. 서울: 법문사)
- Polanyi, Karl. 1944. *The Great Transformation*. (홍기빈 옮김. 2009. 『거대한 전환: 우리시대의 정치·경제적 기원』. 서울: 도서출판 길)
- Poter, Michael E. and Mark R. Kramer. 2011. *The Big Idea: Creating Shared Value*. (<http://hbr.org/2011/01/the-big-idea-creating-shared-value/ar/1>, 검색일: 2011년 7월 19일)
- Quan-Haase, A. and B. Wellman. 2004. "How Does the Internet Affect Social Capital?" in M. Huysman and V. Wulf(eds.). 2004. *Social Capital and Information Technology*. Massachusetts: The MIT Press.
- Reich, Robert B. 2007. *Supercapitalism*. (형선호 옮김. 2008. 『슈퍼자본주의』. 퍼주: 김영사)
- Ridley-Duff, Rory. 2010. "Communitarian Governance in Social enterprise: Case evidence from the Mondragon Cooperative Corporation and School Trends Ltd." *Social Enterprise Journal*, 6(2), pp. 125~145.
- Schmitter, P. 2002. "Participation in Governance Arrangements: Is there any reason to expect it will achieve sustainable and innovative policies in a multi-level context?" in Jürgen Grote and Bernard Gbikpi(eds.). *Participatory Governance: political and societal implications*, pp. 51~70.
- Scholl, Hans J. 2007. "E-Government-Induced Business Process Change (BPC): An Empirical Study of Current Practices." in Donald F. Norris(ed.). 2007. *Current Issues and Trends in E-Government Research*. Hershey: Cyber Tech Publishing.

- Social Enterprise Coalition. 2003. *There's More to Business Than You Think: A Guide to Social Enterprise*. London: Social Enterprise Coalition.
- Tani, Mario. 2009. "Social Enterprise' social capital as a Source of Competitive Advantage." *EMES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ocial Enterprise*, pp. 1~28.
- Tapscott, Don. 2009. *Grown Up Digital: How the Net Generation Is Changing Your World*. (이진원 옮김. 2009. 『디지털 네이티브』. 서울: 비즈니스북스)
- UNDP. 2005. E-Governance: Practice Note.
- Visser et al. 2007. *The A to Z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 Complete Guide to Concepts, Codes and Organizations*. West Susses: John Wiley & Sons Inc Press. (임정재 옮김. 2009.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A부터 Z까지』. 서울: 재승출판)
- Vogel, David. 2005. *The Market for Virtue*. (김민주·김선희 옮김. 2008. 『기업은 왜 사회적 책임에 주목하는가』. 서울: 기획출판 거름)
- Walsh, Luca. 2007. "Extending E-government and Citizen Participation in Australia through the Internet." in *Encyclopedia of Digital Government*, II, pp. 812~818.
- World Bank. 2003. *Sustainable Development in an Dynamic World. World Development Report*. Washington DC.
-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홈페이지(www.cooperatives.go.kr).
- 한국 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www.soocialenterprise.or.kr).
- 대한민국 『사회적기업육성법』(2012.2.1 개정).
- 대한민국 『협동조합기본법』(2014.1.21 개정).